

2025년 중학생 동아리 서포터즈  
도담 서포터즈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

고은혁 | 김민호 | 김시훈 | 박채성

# 안녕하세요, 우리는 **도담 서포터즈** 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강릉종합사회복지관

##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도담 서포터즈 활동은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청소년의 참여를 중심에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의 방향과 의미를 고민하였으며, '아무지도 탐스럽다'라는 뜻을 담아 '도담 서포터즈'라는 이름을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는 지역 축제 속에서 청소년이 역할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담당자는 기획 단계부터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준비·운영 과정 전반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지시하는 역할보다는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요제 예선전에서는 도담 서포터즈 청소년들이 현장 진행 및 운영 보조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사전 모임을 통해 예선전 진행 흐름과 역할을 함께 정리하고, 청소년 각자가 맡은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행사 준비와 운영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선 당일에는 무대 운영 참여와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요제 감상 소감을 받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청소년들이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감상 소감 질문 내용을 함께 구성하였으며,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도담 서포터즈 청소년들은 도담도담 성장하며 지역 축제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수정



2025년 중학생 동아리 서포터즈

# 도담 개포터즈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

고은혁 | 김민호 | 김시훈 | 박채성

## 서로를 더 잘 알아가보자



도담 서포터즈의 첫 만남은 형식적인 자기소개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담당자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활동의 방향과 의미를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강점 알아보기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각자가 잘하는 점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화 속에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의견을 제안하며 분위기를 이끄는 은혁이,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정리하는 채성이, 의견을 조율하며 방향을 잡는 민호, 충분히 고민한 후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시훈이 각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강점 작성 이후에는 왜 그 강점을 선택했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공유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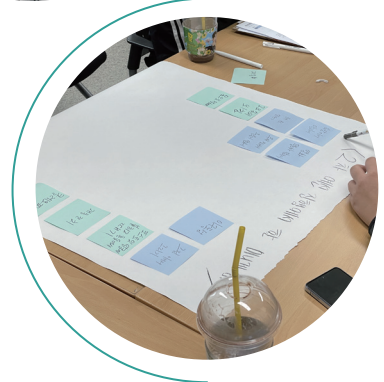
강점 분석 이후에는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를 소개하고, 도담 서포터즈가 준비해야 할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작년 행사 사례를 공유하며 활동의 흐름을 설명하였고,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요 속의 외침과 음악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이 제안되었으며, 참여자들은 부담이 되는 요소를 함께 조정하며 활동 방향을 정해 나갔습니다.

최종 활동은 참여자들의 투표를 통해 고요 속의 외침과 음악 퀴즈로 결정되었고, 세부 주제와 준비 방식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주도, 제안, 조율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담당자는 흐름을 정리하며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첫 만남은 결과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담 서포터즈는 이 시간을 통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를 향한 첫 걸음을 도담도담 내딛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도담 서포터즈입니다!



## 본격적으로 놀이 결정하기



안녕하세요, 우리는 도담 서포터즈입니다.

앞선 회기에서 도담 서포터즈는 서로의 강점을 알아가고,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를 위해 어떤 활동을 준비할지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그 논의를 바탕으로 1차 예선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담당자는 가요제 전체 일정을 다시 공유하며, 이번 회기에서 결정하고 준비해야 할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논의를 이날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활동을 더 준비하고 싶다는 참여자들의 아쉬움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추가 준비물 구입 시 다시 만나는 방안을 제안하며 다음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차 예선 진행 중 도담 서포터즈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담당자는 예선 현장에서 단순히 관람하거나 호응하는 역할이 아닌,



본선 진행을 위한 기획 회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참여자들은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담 서포터즈는 가요제 운영을 함께 고민하는 주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팀 빌딩과 미니게임 진행을 위한 역할 분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강점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었고, 진행자와 보조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앞선 회기에서 드러났던 모습들이 실제 역할로 연결되며, 각자의 강점이 활동 속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팀 빌딩 활동은 처음 만나는 가요제 참여자들의 어색함을 완화하기 위해 네임텐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팀 빌딩의 의미를 설명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네임텐트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짧은 활동이었지만, 이를 통해 소개 활동이 한결 자연스러워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니게임 세부 내용 또한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고요 속의 외침과 음악 퀴즈는 참여자가 직접 논의하며 난이도와 방식을 조정하였고, 의견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에는 대화를 통해 조율해 나갔습니다. 담당자는 논의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며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아이디어가 실제 준비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도담 서포터즈는 함께 결정하고 역할을 나누는 경험을 통해,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를 향한 준비를 한 걸음 더 깊이 이어갔습니다.

## 본격적으로 1차 예선 진행하기



처음 1차 예선을 준비하던 날, 도담 서포터즈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설렘보다 긴장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풍선을 불며 어디부터 꾸며야 할지 망설이던 순간부터, 대본을 손에 쥐고 서로의 말을 맞춰보던 시간까지 모든 과정은 ‘처음 해보는 역할’ 앞에 선 청소년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서투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던 청소년들은 게임이 시작되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으며, 조심스럽던 분위기는 팀명과 구호를 외치며 자연스럽게 풀어졌습니다. 가장 조용할 것 같던 청소년이 가장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장면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작은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선을 진행하는 동안 청소년들은 단순히 행사를 ‘돕는 역할’을 넘어, 분위기를 읽고 참가자의 반응에 맞춰 호응을 이끌어내는 주체로 성장해갔습니다.

실수 앞에서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활동이 끝난 후 “그래도 즐거웠다”, “좋은 경험이었다”는 말 속에는 해냈다는 뿌듯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긴장으로 시작한 하루는 서로를 응원하며 손을 맞잡는 마무리로 이어졌으며, 청소년들은 이번 경험이 다음 활동을 향한 자신감이 되었음을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도담 서포터즈의 1차 예선은 무대 위의 행사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책임과 협력,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직접 마주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 본선 함께 진행하고 마무리하기



본선 활동이 진행되던 날, 도담 서포터즈 청소년들은 이전과는 다른 책임의 무게를 몸으로 느끼며 현장에 섰습니다. 무대의 크기와 현장의 열기 앞에서 긴장을 이야기하던 청소년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과 참가자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는 참가자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고 “고생했다”는 말을 건네는 행동은 청소년 스스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지역주민 소감을 받는 과정에서는 거절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를 실패가 아닌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은 처음의 머뭇거림을 지나 점차 눈을 맞추고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주체로 변화하였으며, 활동이 진행될수록 자신감 있는 표정과 말투로 현장을 누볐습니다. 특히 공연 직후의 긴장된 참가자들에게 공감과 응원의 말을 전하며 자연스럽게 소감을 이끌어내는 모습에서는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지역주민과 관계 맺기의 성장이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도담 서포터즈입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지만, 해보니 가능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작은 거절과 긴장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경험을 쌓아가며 서로를 믿고 이루어낸 활동이었습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도담 서포터즈 블로그

아이들에게 하나의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2025년 공학생 동아리 개포터즈**